

번역가의 정열 따라가는 번역사 파노라마

《번역사 산책》을 읽고



쓰지 유키 지음 | 이희재 옮김
공리/A5신/298면/10,000원

정영목 | 번역가 · 이화여대 통번역대학원 강사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우리말 책들 가운데 번역사(翻譯士)가 아닌 번역사(翻譯史)에 대한 책이 《번역사 산책》 단 한권뿐이라는 사실은 뜻밖이면서도 흥미롭다. 요즘처럼 학문간 교류가 활발하고 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은 때 번역을 키워드로 문화 중심의 이동과 장악, 민족 언어와 근대적 의식의 형성, 정보의 집적과 전유 방식 등의 문제를 풀어봄직도 한데, 의외로 이 방면의 서가는 쓸렁한 것을 보니 필자의 판단 착오를 놓고 여러 가지 씩씩한 이유들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

번역은 정치적 행위이자 문화의 뇌관

그러나 이 책을 몇장 넘기다 보면 금세 어수선한 마음이 가라앉는다. 특히 앞부분에서 술해 놓은 르네상스 시대까지의 번역사에서는 극적인 재미까지 맛볼 수 있다. 지은이는 헬레니즘으로 정리된 서구 문화가 역사의 격변을 따라 '놀랍게도' 아랍으로 번역됐다가 다시 유럽으로 재번역되고, 그것이 다시 라틴어에서 각 나라 말로 번역되는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 이 과정을 음미하다 보면 번역이 과연 지은이의 표현대로 "보편적 행위"인 동시에 역자 표현대로 "보편의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행위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여기에 약간의 상상을 보태 이 번역사가 곧 계몽주의 이후 서구 곳곳에서 전복을 시도해온 '진리' 또는 '진리의 권위'를 수렴하고 계승해온 과정이라고 한다면, 번역 또한 반역 못지 않게 '정치적'인 행위일 수 있다는 생각도 해보게 된다.

이렇게 번역이 문화의 뇌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이 책에서 지은이가 세심하게 다루고 있는 여러 번역 논쟁에서도 확인된다. 사실 번역은 두가지 언어를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둘 사이의 긴장은 피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논쟁이 되풀이돼왔다는 것은 이미 귀에 익은 이야기다. 그러나 이 문제는, 언뜻 단편적이고 추상적으로 보이기 는 하지만, 사실 문화의 핵심인 언어와 관련된 문제가 때문에 언제든 당대의 대립하는 문화적 태도들과 연결돼 싸움다운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17세기 말 프랑스에서 고전으로부터의 문화적 이유기를 배경으로 벌어진 안 다시에와 라 모트의 논쟁

이 대표적인 예다. 지은이가 공들여 서술한 이 사례를 읽어 나가면서, 현재 번역을 바라보는 여러 입장의 근저에 놓인 문화적 태도를 추측해보는 것도 즐거운 일이다.

번역가 개개인에게 눈길 오래 머물러

이 책이 또 흥미로운 것은, 이제 와서 이야기지만, 일본인 번역가가 쓴 서양(주로 프랑스) 번역사를 우리 번역가가 번역했다는 점 때문이다. 우선 지은이가 번역가기 때문에 번역사를 따라가다 만나는 번역가 개개인에게 눈길이 오래 머무는 것은 피할 수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책의 제목을 '산책'이라고 붙인 것은 그럴 듯하다. 이 산책로는 완전군장한 학자가 다니는 길과는 아무래도 다를 수밖에 없는데, 지은이가 목에 힘 주지 않고 택한 이 길 때문에 오히려 일본 에세이스트 클럽 상을 받은 필력을 발휘할 여지가 넓어진 면도 있는 것 같다. 우리말 번역자의 빼어난 숨씨 덕분에겠지만, 실제로 그녀의 목소리는 귀가 솔깃하게 다가온다.

지은이는 또 일본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책을 쓴 동기 자체가 일본 내의 번역 논쟁이었기 때문에, 계속 일본으로 돌아온다. 예컨대 프랑스에서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이 번역된 이야기를 하다가 "물론 일본어로도 번역되어 있다. 처음 번역된 것은 1914~1915년에 나온 다카하시 고로의 번역인데... 초기 번역은 영어를 중역한 것이고, 그리스어 원전 번역이 이루어진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다" 하는 말을 슬쩍 끼워넣는 식이다. 지은이의 머릿속에서 서양 번역사와 일본 번역사 사이의 대화가 계속 이뤄지는 셈인데, 그녀의 머릿속을 기웃거리며 이 대화를 엿듣는 재미도 쏠쏠하다. 그러나 어느 정도 귀를 기울이다 보면 문득 "그런데 한국 번역사에서는 말이지..." 하고 대화에 끼어들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 순간 뭔가 비어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된다. 이 비어 있다는 사실 역시 우리가 이 책에서 깨달을 수 있는 소중한 것이고, 또 우리말 번역가가 이 책을 번역하는 행위를 통해 드러내는 것이 아닐까. ■

정영목씨는 현재 전문 번역가로 활동하며 이화여대 통번역대학원에서 강의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 《마르크스 평전》 《땀 그리고 함께 오르는 산》 《사기에 꽃인 책》 등이 있다.